

# “지리산 천연허브·국화 향기에 취해보세요”

남원시, ‘허브&국화향 페스타’ 운봉읍 허브밸리서 12일 개막  
만송이 넘는 국화향 존 눈길·토피어리 조형물 등 볼거리 풍성

“지리산에서 천연허브와 국화 향기에 취해보세요.” 남원시는 (사)허브육성사업단과 허브민간단체, 공예작가, 음악인 등과 함께 꾸미는 ‘허브&국화향 페스타’를 12일부터 20일까지 운봉읍 지리산허브밸리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인공적인 조형물 대신 기존 자연과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꾸며졌다. 지리산이 품은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정원을 소개한다는 목표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끌 경관은 ‘국화향’ 존이다.

그 주변에는 감성이 넘치는 토피어리 조형물이 연출돼 방문객들에게 국화 향기를 한껏 취하고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을 선물한다. 또 작은 그라스와 기장류, 속근초화류 등 13종 576개로 축제의 지향적인 부드러움지만 자연스럽게 하늘거리는 몽환적 느낌의 정원을 연출했다. 화분전시와 재활용 가드닝도 색다른 볼거리로 선출된다. 축제를 풍성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방문객을 반긴다. 잔디광장 주변과 복합토피아관 로비에서 야외카페와 정원 플라마켓, 향전시관이 운영된다. 원형광장에서는 정원 놀이터와 강통 열차 등을 마련해 가족단위 방문객과 어린이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사)허브육성사업단과 허브민간단체, 공예작가, 음악인 등이 함께 꾸미는 ‘허브&국화향 페스타’가 12일부터 20일까지 운봉읍 지리산허브밸리에서 열린다. 지리산허브밸리 일원 (남원시 제공)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축제장의 다양한 모습을 SNS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면 기념품으로 허브분화를 제공하는 ‘허브분화 나눔 인증샷 이벤트’도 운영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레포츠 시설과 연계해

지리산의 대표 매력시설로 지리산 밸리를 조성하겠다”면서 “허브와 국화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페스타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여수시, 동백종자 3.9t 수매한다

농업기술센터서 12월 20일까지...화장품 원료 사용

여수시가 2019년산 동백종자 3.9t을 kg당 7000원에 수매한다. 수매 대상은 완전히 성숙돼 검은색을 띤 건조 동백종자로 이물질이 섞여있지 않아야 한다. 판매를 원하는 시민은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백종자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동백기름가공품 생산판매사업장으로 가져가면 된다. 수매된 동백종자는 볶음, 착유, 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전량 여수동백화장품 원료로 사용된다. 여수동백화장품은 천연동백오일, 동백에센스, 동백수분크림, 동백클렌징폼



등 11종으로 구성돼 있다.<사진> 여수시는 지난 2014년 (주)엘엔케이네이처와 여수동백화장품 생산·판매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 ‘다도해, 내 도시락을 부탁해’

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객에 배달 서비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인 ‘다도해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운영한다. 탐방객이 예약하면 탐방로 입구까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프로그램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0일 바다경관을 조망하며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완도 정도리 구계등에서 서비스를 우선 시작했다. 희망자는 카카오톡에서 ‘다도해,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해 뒤 친구추가 채팅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이용 하루 전 오후 1시까지 주문 가능하다. 메뉴는 완도 바다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도시락’ (뽕밥, 전복구이, 기타 밑반찬·사진)과 ‘빙그레 도시락’ (뽕



밥, 생선구이, 기타 밑반찬) 등 2가지로 가격은 각 1만원, 8000원이다. 김영배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통해 탐방객들의 편의를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고창군-중국 조장시 경제·문화교류 협력 논의

중 방문단 모양성제 방문... 15일엔 유기상 군수 산동성 찾아

중국 조장시 방문단이 고창군을 방문해 경제·문화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모양성제 축제기간 지난 3-6일 중국 산동성 조장시 범위동 체육총회 비서장과 송해방 부부장 등 8명이 고창을 찾았다.<사진> 방문단은 북부농공단지(참바다), 매일유업, 상하농원, 황토배기유통공사,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북고등학교 등을 둘러보며 고창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문화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심원 만들 갯벌체험, 선운산도립공원 등을 둘러보면서 문화·관광의 연계 홍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창군과 중국 조장시는 2003년 양국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협의회 체결 후 대표 축제 상호방문·산업·경제·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고창군은 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해 고창북고등학교에 중국어학과를 개설하고 공자의 사상을 배우기 위한 공자학당을 운영 하고 있고, 조장 시청부센터에는 고창군 홍보 책자를 비치해 홍보하고 있다. 1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조장시 초청으로 유기상 고창군수 등 방문단 12명이 중국 산동성 국제우호교류 40주년 기념 행사를 참석하고 고창군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가질 계획이다.



31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지역 중학생 20명이 중국 조장시를 찾아 고창군 최초로 청소년 홈스테이도 예정돼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먼 길 마다않고 찾아와준 조장시 방문단에게 고맙게 생각하

다”며 “앞으로도 조장시와 고창군은 경제·문화·예술·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양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시, 한부모가족 등 12개분야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정읍시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지원 등 12개 분야 복지수급자에 대해 조사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해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은 2432건이다. 복지사업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

환수 또는 복지 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68종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조사를 통해 급여 감소 및 자격탈락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타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긴급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순창군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분을 지원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대출신청기준일부터 현재까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단 휴학생이나 졸업자, 대학원생은 지원하지 않는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이자 지원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한해 지원하며 타 금융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받은 대출 이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군 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익산시, ‘식품대전’ 내년으로 연기

익산시는 오는 11월 1일과 2일 개최하기로 했던 익산식품대전을 2020년으로 연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익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기관 긴급회의를 통해 올해 식품대전을 연기하기로 했다. 시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행사 연기에 뜻을 함께 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시는 2020년 식품대전을 NS쿠폰페스트와 통합해 진행하고 서동축제·국제컨퍼런스 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익산식품대전은 당초 11월 1일과 2일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서 소스산업화센터 개소식,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 전시·판매, 지역농산물 홍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 문의. 010-6834-7400

